

2024년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 말씀살기 · 성체성사 · 좋은이웃 -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해를 선물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올해 우리 공동체가 중점을 두고 살아갔으면 하는 세 가지를 교우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 **말씀살기**: 하루 10분 말씀과 함께, 성경 통독, 성경 공부반 참여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요한 1,14 참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합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님 뜻에 맞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 **성체성사**: 주일 미사 충실히, 평일 미사 권장, 영어 미사 활성화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이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은총의 성사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는 험난한 세상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착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매 미사 때마다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주일 미사는 물론, 평일 미사에도 참례하여 더 자주 예수님과 성체성사로 하나 됩시다. 주일 영어 미사 참례는 영어 미사 활성화와 CCOP와의 화합에 도움이 됩니다.

■ **좋은이웃**: 반모임 활성화, 연령 단체 활성화, 쉬는 교우와 새 교우를 위해 기도

우리는 “하느님의 한가족”(에페 2,19)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드립니다. 반모임을 통해 하느님 말씀과 각자의 삶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연령별 모임과 친교 모임을 활성화하여 서로 더 많이 친해집니다. 쉬는 교우와 새 교우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의 식탁에서 한 분의 말씀을 나누고, 성찬의 식탁에서 하나의 빵을 나눌 때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하나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트라이밸리 공동체가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7)

2024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김현국 요한사도 신부

\* “좋은 이웃”은 춘천교구 소공동체 모임(반모임) 안내 책자의 제목입니다.